

[列國誌] 2부 장강의 영웅들 (298) 제38장 구천의 와신상담

제38장 구천의 와신상담 (1)

회계산(會稽山)에서 오왕 부차(夫差)에게 무릎 꿇고 항복한 월왕 구천(句踐)은 도읍인 제기(諸暨)로 돌아왔다. 시가(市街)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하늘은 어둡고 백성들은 활기를 잃었다. 구천(句踐)은 왕궁 앞에 이르자마자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다.

"나는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월(越)나라의 번영을 도모하고자 했건만, 오히려 주초산에서 패하고 회계산에서 치욕을 당했도다. 이 어찌 통탄할 비극이 아닌가."

구천(句踐)의 주변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모든 신료가 함께 앉아 눈물을 쏟아냈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안았다. 망국의 왕과 망국민의 비통함이었다.

"아아, 이 몸은 천 리 먼 곳으로 볼모가 되어 떠나게 되었도다. 이제 떠나면 과연 언제 돌아올 것인가."

구천(句踐)의 애절한 하소연은 좀처럼 그치질 않았다.

어느 순간 한 신하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구천 앞에 가서 섰다. 대부 문종(文種)이었다. 그는 눈물을 훔치고 비장한 어조로 간했다.

"왕이시여. 신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옛날 은나라 시조 탕왕(湯王)은 하대(夏臺)에 수금되었고 주나라 문왕(文王)은 유리에 사로잡힌 바 있으나, 그들은 후에 다시 일어나 천자가 되었습니다."

"또 제환공(齊桓公)은 거나라로 달아났고, 진문공(晉文公)은 백적으로 망명했습니다만, 그 후에 다시 일어나 천하 패권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역대의 위대한 왕과 패자(霸者)는 한결같이 괴롭고 어려운 역경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왕께서 부초산에서 패배를 당하고 회계산에서 굴욕적인 맹세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는 모두가 하늘의 뜻입니다. 남은 것은 지나간 간난(艱難)을 딛고 우뚝 서서어 대업을 이루는 일뿐입니다. 바라건대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스스로 굳은 뜻을 세우십시오."

문종의 이같은 말에 구천(句踐)은 문득 생각을 바꾸었다.

흔연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외쳤다.

"그대 말이 옳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결코 이 나라 사직을 포기하지 않겠소."

그 날부터 구천(句踐)은 나라일을 정리하여 오나라로 출발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부고에 있는 보물을 내어 수레에 실었다. 또 여자 330명을 뽑아 그 중 3백 명을 오왕 부차(夫差)에게 보내고, 나머지 30명은 태재 백비에게 보냈다.

그러는 사이 한 달이 후딱 지나갔다.

이제 며칠 후면 5월이다. 구천(句踐)이 인질이 되어 오나라로 떠나야 할 날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때맞추어 회계산에 주둔하고 있던 오나라 장수 왕손웅(王孫雄)으로 부터 독촉장이 날아왔다.

- 빨리 출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데리러 가겠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다.

월왕 구천(句踐)은 종묘로 들어가 하직인사를 올렸다. 선왕들의 무덤을 찾아 일일이 참배했다.

이윽고 구천과 그 부인이 오나라를 향해 떠나는 날이 되었다.

구천(句踐)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왕궁을 나와 절강(浙江) 나루터로 향했다.

범려와 문종 등 모든 신료들이 인질이 되어 떠나는 왕을 전송하기 위해 그 뒤를 따랐다. 절강 나루에 당도했다. 구천(句踐)이 배에 올라타려고 할 때였다.

대부 문종(文種)이 술잔에 술을 채워 높이 쳐들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향해 기도를 올렸다.

- 하늘이시여, 우리 왕을 도우소서. 처음에는 괴로울지라도 후일엔 반드시 영광이 있게 하소서. 불행한 자로 하여금 덕(德)을 기르게 하시고, 근심 걱정을 복으로 변하게 하소서. 위세를 자랑하는 자를 망하게 하시고, 하늘의 뜻에 복종하는 자를 번영케 하소서.

- 한 번 불행한 자에겐 다시 불행이 없게 하시고, 한 번 눈물을 흘린 자에겐 두 번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소서.

이어 그는 술잔을 구천에게 바치며 말했다.

"왕이시여, 부디 이 간난(艱難)을 헤치고 곳곳하게 서십시오. 오늘의 이 애간장 끊어지는 고통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런 뜻에서 이 술잔을 바칩니다."

월왕 구천(句踐)은 문종이 바치는 고별 술잔을 받아들였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다가 단숨에 술을 들이켰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모두들 눈이 붉어지며 고개를 외면했다.

대부 문종이 물러나오자 이번에는 범려(范蠡)가 앞으로 나섰다.

"왕이시여, 불행이 없으면 그 뜻을 넓힐 수가 없고 근심이 없으면 앞날을 멀리 내다볼 수 없습니다. 자고로 모든 성현이 이런 고생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왕께서는 부디 이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구천(句踐)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신하들이여, 나는 오늘의 일을 결코 피하지 않겠소. 다만 걱정되는 것은 내가 떠나고 없는 이 나라 사직이요. 옛날 요임금은 순(舜)과 우(禹)에게 나라일을 맡겼는데, 가뭄이 일어도 큰 피해가 없었고 황하가 범람해도 풍년이 일었다 하오."

"나는 이제 고국을 떠나며 이 나라 사직을 그대들에게 맡기는 바요. 특히 범려(范蠡) 그대는 이 나라 사직을 지켜나갈 중추요. 부디 나를 대신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키워 오늘의 이 치욕을 설치(楔齒)해 주시오."

이르테면 범려를 섭정으로 임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범려(范蠡)는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었다.

그는 양연히 고개를 쳐들고 아뢰었다.

"모름지기 임금에게 근심이 있으면 이는 신하 된 사람의 치욕이며,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왕께선 적국으로 볼모가 되어 가시니 이는 바로 우리 신하들의 치욕입니다."

"어찌 월(越)나라에 왕의 근심을 함께 나눌 신하가 없겠습니까. 신은 일월(日月)에 맹세하오니, 왕을 따라 오(吳)나라로 가 우리 왕께서 겪는 치욕과 근심과 걱정을 함께 할까 합니다."

순간 나루터는 무거운 정적에 빠졌다.

'아!'

어느 누구도 범려(范蠡)가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구천(句踐)은 놀라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대가 나와 함께 오(吳)나라로 가면 누가 이 곳에 남아 월(越)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요?"

범려(范蠡)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한다.

"왕께서는 문종에게 나라일을 맡기십시오. 임금을 모시고 임기응변 하는 일은 신이 문종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위무하는 일은 문종(文種)이 신보다 잘 압니다."

"그는 왕께서 오나라로 가 계시는 동안 군량을 비축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백성들을 단결시킬 것입니다. 신은 왕을 모시고 오(吳)나라로 가 함께 간난을 이겨낸 후 다시 돌아와 문종(文種)이 비축해놓은 군량을 바탕으로 오나라에게 원수를 갚을까 합니다."

구천(句踐)은 자신을 따라 오나라로 가겠다는 범려의 각오에 다시 한 번 감격했다.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한참 동안 범려를 바라보다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문종에게로 눈길을 던졌다.

"그대는 과인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는가?"

"왕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 동안 신은 범려(范蠡)가 말한 대로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량을 비축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놓겠습니다. 왕께서는 부디 오늘을 잊지 마십시오."

대부 문종(文種)의 이러한 충성 맹세에 다른 대부들도 각기 앞으로 나서며 구천에게 맹세했다. 태재 고성(苦成)이 술잔을 들었다.

- 신은 임금의 명령을 백성에게 퍼고, 임금의 덕(德)을 밝히고, 복잡한 것을 통합하고, 어려운 일을 다스리어 백성들로 하여금 본분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인(行人) 벼슬에 있는 예옹(曳庸)이 나섰다.

- 모든 나라 제후에게 사자를 보내어 여러 가지 분규를 해결하고, 서로의 의혹을 풀되 다른 나라에 가서는 나라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국내에 돌아와서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맹세합니다.

사직(司直) 호진(皓進)이 나서서 아뢰었다.

- 신의 직분은 바른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종(文種)이 왕을 대신하여 잘못 행하는 일이 있으면 신은 직언으로써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의심나는 점을 판단케 하겠습니다.

사마 제계영(諸稽郢)이 맹세한다.

- 신은 1년을 하루같이 군사들과 함께하며 진법을 훈련하고, 활 쏘는 것과 칼 쓰는

제38장 구천의 와신상담 (2)

월왕 구천(句踐)이 배 위에 오르자 돛이 오르고 배가 움직였다.

구천과 범려(范蠡)는 난간에 서서 강변에 서 있는 신료들을 내려다보았다.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문득 구천(句踐)이 들릴 듯 말듯 혼자 중얼거렸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하지만 나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루가 점점 멀어져 갔고, 이윽고 강변의 신료들은 하나의 작은 점이 되었다.

오(吳)나라로 향하는 뱃전에 노랫가락이 울려퍼지고 있었다.

나는 새를 보라,

한 마리 수리로다.

빈 하늘을 가르는 것은 힘찬 날개짓.

모래톱에 모여 한가로이 노니는

힘찬 날개의 저 놀림이여,
 구름사이에 있구나.
 흰 새우를 쪼고 물을 마시고
 가고 오는 것을 마음대로 하도다.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
 이 땅을 떠나는가
 까닭을 모르겠다.
 하늘도 무심하구나.
 바람아 불어라 나는야 북쪽으로 간다.
 언제 다시 돌아올 것인가
 기약할 수 없도다.
 괴롭고 괴로운 이 마음
 칼로 베는 듯하는데
 언제 이 눈물 그칠 것인가.
 월왕 구천의 아내인 월부인(越夫人)이 부르는 노래였다.
 구천(句踐)은 이 노래를 듣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조용히 부인 곁으로 다가가 위로를 했다.
 "그대는 너무 슬퍼 마오. 나에게는 날개가 있소, 조만간 높이 날아오를 날이 도래할 것이오. 그때
 까지만 참으시오."
 월왕 구천(句踐)이 탄 배는 오나라 경계로 들어섰다.
 범려(范蠡)가 먼저 오성으로 들어가 태재 백비를 방문했다.
 그는 구천(句踐)이 당도했음을 알리고 황금과 여자를 바쳤다.
 백비(伯嚭)는 마치 자신이 오왕이 되기라도 한 듯 거만하게 물었다.
 "대부 문종(文種)이 오지 않고 어찌하여 그대가 왔는가?"
 "문종은 나라일을 정리하느라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대 왕은 어디 있는가?"
 "오강 나루에서 태재의 분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백비는 범려를 따라 오강 나루터로 나갔다. 월왕 구천(句踐)은 백비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여 인사
 했다.
 "이렇게 목숨이나마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태재 덕분입니다."
 백비(伯嚭)는 구천의 공손한 태도에 마음이 흡족했다.
 "기회를 보아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게 힘써주겠소."
 구천(句踐)은 압송되는 형식으로 함거를 타고 오성으로 들어갔다.
 오나라 중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월왕 구천은 상반신을 발가벗고 무릎걸음으로 기어가 궁 뜰 아
 래 꿇어 엎드렸다.
 월부인(越夫人)도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했다. 범려는 따로이 시종에게 월(越)나라에서 가져온 보
 물과 여자의 명단을 바쳤다.
 오왕 부차(夫差)는 무표정한 얼굴로 물품 목록을 훑어본 후 입을 열었다.
 "내가 부왕의 원수를 갚기로 한다면 어찌 그대를 살려둘 수 있으리오만, 그대의 정성을 보아 특별
 히 목숨을 보존시켜주는 것이니 그대는 오(吳)나라에 대해 충성을 다하도록 하라."

그자리에 오자서도 있었다.

그는 그때까지도 구천의 항복을 용납하지 않았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기둥이 흔들릴 정도로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간(諫)했다.

"하늘을 나는 새에게도 활을 당겨 쏘거늘 하물며 뜰 앞에 앉아 있는 적을 어찌 그냥 버려두십니까? 구천(句踐)은 원래 속이 음험한 자입니다. 지금은 형세가 궁하여 가마솔의 고기처럼 가만히 앉아 있지만, 목숨을 부지하고 한 번 뜻을 얻기만 하면 마치 바다로 돌아간 고래처럼 큰 파도를 일으킬 것입니다. 왕께서는 구천의 간교함에 속지 마시고 지금 곧 목을 참하십시오. 그래야 후환이 없습니다."

그 말에 구천(句踐)과 범려(范蠡)의 안색이 핏색해졌다.

오왕 부차(夫差)가 타이르듯 오자서를 향해 말했다.

"내 듣기로 항복한 자를 죽이면 그 재앙이 삼대에까지 미친다 하오. 내가 구천을 살려두는 것은 월나라를 사랑해서가 아니오. 우리에게 불행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니, 경(卿)은 아무 염려 마오."

태재 백비(伯嚭)가 오왕 부차(夫差)를 돕기 위해 한마디했다.

"오자서는 눈앞의 일에는 밝을지 몰라도 나라를 편하게 하는 법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왕께서는 오자서의 말에 과념치 마십시오."

오자서(伍子胥)는 턱을 부들부들 떨었다.

하지만 어찌랴. 부차의 마음이 이미 구천을 살려주기로 마음을 정한 것을.

부차(夫差)는 월왕 구천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그 조치라는 것이 구천에게는 여간 치욕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 선왕 합려의 능침이 호구산에 있다. 구천(句踐) 부부는 오늘부터 머리를 깎고 그 능침 옆에 있는 석실에 기거하면서 아침저녁으로는 능침을 돌보고 낮에는 말을 기르도록 하라.

합려 왕의 능지기 겸 목부(牧夫)로 삼은 것이었다.

그 날부터 구천(句踐)부부와 범려(范蠡)는 합려의 무덤으로 가 석실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때묻은 옷을 입고 냄새나는 말똥을 치웠다. 아침저녁으로는 무덤의 풀을 깎았다.

때때로 부차(夫差)는 구천을 불러 자신의 수레를 끄는 말고삐를 잡게 하여 거리로 행차하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손가락질하며 조롱했다.

- 저 말고삐를 잡은 자가 월왕 구천이다.

그러나 구천(句踐)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걷기만 했다.

한편, 오자서(伍子胥)는 범려가 유능한 인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오왕 부차를 찾아가 그를 오나라 신하로 삼을 것을 청했다.

부차(夫差)도 범려가 마음에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인 후 범려만 따로이 궁안으로 불러들였다. 무릎을 꿇은 범려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어진 여인은 망한 집으로 시집가지 않고, 현명한 사람은 망한 나라에서 벼슬하지 않는다 하였다. 덕 없는 구천(句踐)은 나라를 망치고 자기 신세까지 망쳐 노예가 되어 만인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대는 종복도 없이 말똥 치우기가 비참하지도 않느냐? 만일 그대가 구천을 버리고 나를 섬긴다면, 나는 그대의 지난날 죄를 용서하고 그대를 높은 벼슬에 봉하리라. 나와 더불어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은 없는가?"

그러나 범려(范蠡)는 머리를 조아리며 정중히 사양했다.

"망국의 신하는 정치를 말하지 않으며, 패장은 용맹을 말하지 않는 법입니다. 지난날 신은 충과 신과 지혜가 부족하여 능히 월왕(越王)을 돕지 못하고 오왕께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다행히 대왕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이렇듯 저희들을 석실에서 생활하게 하시니 신은 이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신이 부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곁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오자서(伍子胥)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부차에게 재빨리 속삭였다.

"범려(范蠡)는 예사 인물이 아닙니다. 구천과 범려를 함께 있게 하면 무슨 흥계를 꾸밀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범려를 죽이는 게 낫겠습니다."

부차(夫差)는 오자서의 말이 못마땅했다.

조금 전에는 범려를 등용하라고 청하더니, 지금은 죽이라고 하질 않는가. 그는 오자서가 늙었다고 생각했다.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소. 나를 섬길 뜻이 없다고 하니 그냥 석실로 돌아가게 합시다."

오자서(伍子胥)는 한숨을 내쉬며 궁을 나왔다.

범려(范蠡)는 다시 호구산 석실로 돌아왔다.

그는 전보다 더욱 구천(句踐)을 공손히 섬겼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월나라에 있을 때와 다를 없이 구천을 보살피고 돌보았다.

어느 날 밤이었다.

오왕 부차(夫差)는 오자서의 말대로 혹시나 그들이 판뜻을 품지나 않을까 의심하여 측근 시자(侍者)를 보내 몰래 그들의 석실을 엿보게 했다.

오왕의 측근 시자는 호구산으로 가 밤새 석실을 엿탐했다.

그러나 구천(句踐)과 범려(范蠡)는 부지런히 말에게 먹일 풀만 썰 뿐 조금도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기색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먼동이 틀 때까지 쉬지 않고 일만 했다.

부차(夫差)는 오자서가 틀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찌 알았으리오. 그들이 수시로 태재 백비에게 뇌물을 바치며 궁중 내의 일을 소상히 알아내고 있었던 것을.

범려(范蠡)는 그 날 저녁에 이미 백비의 통보를 받고 엿탐꾼이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제38장 구천의 와신상담 (3)

그날 밤이었다.

백비(伯嚭)는 구천(句踐)이 머물고 있는 석실로 사람을 보냈다.

- 조만간 귀국하게 될 것 같소.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한 덕분이니 월왕은 귀국하더라도 나에 대한 의를 저버리지 마시오.

월왕 구천(句踐)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기뻐했다.

"이것이 꿈이나 아닌지 모르겠소."

범려의 손을 붙들고 춤이라도 출 듯한 태도였다.

그러나 범려(范蠡)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공손한 태도로 말했다.

"모든 것은 하늘이 명하는 것입니다. 신이 왕을 위해 점을 쳐보겠습니다."

거북등이 없었으므로 시초(蓍草)점을 쳐보기로 했다.

이내 사(辭)가 나왔다.

사방이 막혀 벗어날 길이 없으니
만물이 쇠하고 상하도다.

좋은 일은 도리어 재앙이 될 것이니
비록 소식이 있어도 기뻐하지 마라.

굳이 범려(范蠡)가 해석해주지 않아도 불길(不吉) 중의 불길이었다.

구천(句踐)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더 이상 나의 처지가 나빠질 것이 없는데 재앙이라니, 뭔가 잘못된 점이 아니오?"

범려가 어두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오나라 조정에는 백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요?"

"아마도 오자서(伍子胥)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범려의 말에 구천(句踐)은 방금 전의 기쁨과 기대감을 까맣게 잊었다. 그의 얼굴은 어느새 절망과 수심으로 가득 찼다.

범려(范蠡)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 시각, 오자서(伍子胥)는 부차가 구천을 귀국시킬 작정이라는 소문을 듣고 부리나케 궁으로 들어가 또 한바탕 피를 토하듯 외쳐대고 있었다.

"옛날 하나라 걸왕(桀王)은 은나라 탕왕(湯王)을 잡아만 두고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라를 잃었습니다. 또한 은나라 주왕(紂王)은 주문왕(周文王)을 가두어만 두고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나라를 내주었습니다."

"왕께서는 지금 구천을 잡아만 두고 죽이지 않으니, 우리 오(吳)나라가 하(夏)나라나 은(殷)나라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왕께서 만일 구천을 이대로 가두어두거나 석방한다면 우리 오(吳)나라는 장차 하(夏)나라나 은(殷)나라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자서의 단언에 오왕 부차(夫差)는 자신도 모르게 모굴이 송연해졌다. 자신이 너무 감상적이었음을 깨달았다.

"경의 말이 옳소. 내 어찌 구천(句踐)을 탕왕이나 주문왕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리오. 경의 말대로 내일 아침 구천을 불러 아예 죽여 없애겠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날 밤부터 오왕 부차(夫差)는 심하게 아팠다.

설사가 나고 온몸에 열이 올랐다. 이 때문에 부차는 구천을 죽이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다.

백비는 오왕 부차의 마음이 변한 것을 알았다. 석방은 커녕 오히려 구천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자 재빨리 심복 부하를 석실로 보냈다.

- 오자서의 간교한 수작에 의해 우리 왕께서 월왕(越王)을 죽이기로 했소. 그대들은 이에 대한 방비를 신속히 강구하도록 하시오.

이 소식은 구천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다.

그는 어찌나 낙심했는지 울음조차 터뜨리지 않았다. 멍한 표정으로 범려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이윽고 힘없이 입을 열었다.

"이제 꿈쩍없이 죽게 되었구려."

그러나 범려(范蠡)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평소와 다른없는 태도를 취했다.

"왕께서는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오왕이 지난 2년여 동안 왕을 잡아 두고서도 차마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루아침에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날 밤 범려(范蠡)는 석실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자리를 바라본 후 구천(句踐)에게 말했다.

"신이 천상(天象)을 보니 월나라는 3년간 주인을 잃은 후 20년 후에 천하를 제패할 수(數)였습니다. 반면에 오(吳)나라는 20년 후에 나라가 망할 천수(天數)였습니다. 왕께서는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그 말에 구천(句踐)은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다.

"내가 갓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은 것은 오로지 그대의 현명함을 믿었기 때문이요."

그 후 다시 3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오왕 부차로부터는 아무런 명도 내려오지 않았다. 구천(句踐)은 언제 부차의 부름을 받아 죽임을 당할지 몰라 더욱 초조했다. 하루가 마치 1년 같았다. 입술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는 다시 범려(范蠡)에게 물었다.

"어째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일까요?"

"백비의 부하 말에 의하면 오왕의 병이 아직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길조이겠소. 아니면 흉조이겠소?"

혹 오왕 부차가 죽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서려 있는 물음이었다.

범려(范蠡)는 다시 시초 점을 쳐보았다.

점괘를 보고 난 범려가 눈동자를 빛내며 말했다.

"오왕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잘되었습니다. 오왕의 병세는 3일 후부터 차도가 있을 것이요. 닷새 후에는 완쾌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왕께서는 이 기회에 오왕(吳王)을 문병하십시오."

"궁으로 들어가면 일찍이 의술을 배운 바 있다고 말한 후 오왕의 대변을 친히 맛보십시오. 병세를 물으면 3일 후부터 차도가 있을 것이요, 닷새 후에는 완쾌된다고 칭송하십시오. 그대로만 되면 오왕(吳王)은 크게 감동하여 왕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구천(句踐)은 대경실색했다.

오왕 부차의 똥을 맛보라니!

아무리 중복 노릇을 하는 불모라도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구천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눈물부터 흘렸다.

"나는 차마 그 짓은 못 하겠소."

"하셔야 합니다. 옛날 주왕(紂王)은 주문왕을 감금하고 그 아들 백읍고(伯邑考)를 잡아다 끓는 가마솥에 삶아서 주문왕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문왕(周文王)은 원수를 갚기 위해 울음을 참고 살아죽은 자신의 아들을 먹었습니다."

"일시적인 굴욕을 참지 못하면 어찌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월(越)나라 신하들과 백성들은 하루빨리 왕이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범려의 설득에 월왕 구천(句踐)은 마음을 모질게 먹었다.

"중소. 오왕의 똥을 먹겠소."

다음날 구천은 태재 부중(府中)으로 들어가 백비에게 청했다.

"듣자하니 오왕께서 병들어 누워 계시다 합니다. 청컨대 태재께서는 이 구천으로 하여금 오왕을 문병하고 그 병세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백비(伯嚭)는 구천이 부차에게 잘 보이려는 줄 눈치챘다.

"그대에게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데 내 어찌 그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소?"

구천(句踐)은 그 날로 백비의 알선을 받아 부차가 누워 있는 병실로 들어갔다. 구천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두 번 절을 올리고 나서 입을 열었다.

"대왕께서 병중이라는 말을 전해 들은 후 신(臣) 구천은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모르겠습니다.

일찍이 신은 월(越)나라에 있을 때 용한 의원으로부터 의술을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의 대변을 보면 대략 그 병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대왕의 변을 한번 맛보게 해주십시오."

부차(夫差)는 자신의 대변을 맛보겠다는 구천의 말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크게 감동했다.

"그대가 나의 대변을 직접 맛보겠다는 말인가?"

"신은 이미 항복하여 대왕의 충복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의 병세를 짐작하는 일인데, 어찌 대변인들 피하겠습니까."

"놀라운 충성이로다. 내 그대의 희생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구나. 좋다, 병이 나으면 내 반드시 그대의 충성에 보답하리라."

그러고는 변통(便桶)을 가져오게 하여 대변을 보았다.

구천(句踐)은 변통을 앞으로 가져다 똥을 한움큼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그것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 신중하게 맛보기 시작했다. 이 광경에 궁안의 시자(侍者)들은 물론 부차까지도 코를 움켜쥐고 외면했다.

그러나 월왕 구천(句踐)은 태연자약한 모습으로 똥 맛보기를 계속했다.

이윽고 그는 부차 앞에 엎드려 아뢰었다.

"신(臣) 구천은 대왕께 축하드립니다. 대변의 맛을

제38장 구천의 와신상담 (4)

과연 부차(夫差)의 병은 이틀 후에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나흘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싶게 깨끗하게 나았다. 부차(夫差)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없이 컸다.

그는 궁중 문대(文臺)에다 크게 잔치를 베풀고 신료들을 초청했다.

"오늘 나의 병이 낫게 된 것은 오로지 구천의 정성 때문이다. 내 구천과 함께 이 기쁨의 잔을 나누리라. 구천을 불러오라."

잠시 후 구천(句踐)이 궁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그 복장이 여전히 죄수 차림이었다. 부차(夫差)는 좌우 시자들에게 명했다.

"구천이 아직까지 죄수의 옷을 입고 있다니,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 당장 목욕을 시키고 새로 의관을 내주어 들게 하라."

구천(句踐)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으나 겉으로는 거들 사양하다가 못 이기는 체 시자(侍者)를 따라 욕탕으로 들어갔다. 새옷을 갈아입고 다시 부차 앞으로 나왔다.

부차(夫差)는 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구천의 손을 잡아끌고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모든 신료에게 말했다.

"월왕 구천(句踐)은 어질고 덕 있는 사람이다. 어찌 오래도록 욕될 수가 있겠는가. 과인은 장차 월왕의 죄를 용서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낼 작정이다. 오늘 이 자리는 월왕을 위한 자리다. 모든 신하는 국빈에 대한 예(禮)로서 월왕을 대하라."

구천(句踐)으로서는 이 얼마나 기다리던 말이었던가. 그는 쏟아지는 눈물을 간신히 삼켰다.

여전히 공손한 태도로 부차를 섬기는 척했다. 부차 또한 수시로 구천의 손을 어루만지며 그간의 고생을 위로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오자서(伍子胥)는 울화가 치밀어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이제 막 병상에서 일어난 부차의 흥을 꺾 수도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두 잔 술을 받아 마시고는 횡하니 일어나 문대(文臺)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런 오자서의 행동을 훑쳐보던 백비가 재빨리 부차에게 속삭였다.

"이런 기쁜 날에 오자서가 제멋대로 자리를 차고 나가버리니 참으로 불손한 행동입니다. 오자서(伍子胥)는 자신의 공훈을 믿고 너무 교만해진 듯합니다. 왕께서는 깊이 통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 역시 오자서의 교만함과 무례한 언동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소."

잔치는 저녁때까지 이어졌다. 부차(夫差)는 백년지기를 대하듯 구천에게 자꾸 술을 권했다.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모두들 얼큰히 취했다.

그러나 구천의 연극은 취중에도 계속되었다.

어느 순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오왕 부차를 위해 송수시(頌壽詩)를 읊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다.

황왕(皇王)이 위에 계시니

그 은혜가 봄날의 햇살 같도다

어지심은 비할 데 없고

그 덕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름답도다,

그 덕(德) 영원하시고

그 수(壽) 만세를 누리소서

모든 나라 제후들

다 복종할지니

길이 오나라 다스리고

천하를 세우소서.

부차(夫差)는 한껏 취한 후에야 잔치를 파했다.

그는 여전히 흥겨웠다. 민가로 나가는 구천의 손을 부여잡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사흘 안에 그대를 월(越)나라로 돌아가게 해주겠소."

'안 된다. 구천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 날 밤 오자서(伍子胥)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이 모든 게 구천과 범려의 치밀한 계획임을 확신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했다.

날이 새자마자 오자서는 조복(朝服)으로 갈아입고 궁으로 달려갔다.

부차(夫差)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오?"

오자서(伍子胥)는 절규하듯 말하기 시작했다.

"왕께서는 지난날 선왕의 죽음을 잊으셨습니까? 구천(句踐)은 온순하고 공손한 체하지만 그 속마음은 호랑이나 승냥이보다 더 음험하고 날카롭습니다. 귀에 단 소리는 왕의 몸을 망칠 것이요, 눈에 즐거운 웃음은 이 나라를 수렁 속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지금 구천의 감언이설(甘言利說)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충직한 말을 듣지 않고 교언(巧言)에만 귀를 기울이신다면 이는 털을 숯불에 넣고서 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계란을 바위에 던지고도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왕께서는 부디 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그제야 부차(夫差)는 그가 구천의 일 때문에 온 것을 알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과인은 3개월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소. 그런데도 경은 나를 위해 위로의 말 한 번 해준 적이 없소. 이것은 경(卿)이 불충(不忠)한 신하라는 뜻이오. 또 경은 나를 위해 탕약 한 번 지어준 적이 없소. 이것은 경이 불인(不仁)한 신하라는 뜻이오. 불충하고 불인한 신하를 어디에 쓰겠소?"

"....."

"반면 월왕 구천(句踐)은 자기 나라를 버리고 천 리 먼 곳에 와 있으면서도 재물을 바치고 종노릇을 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스럽다는 뜻이오. 또 내가 병에 걸렸을 때 그는 내 변을 핏고도 추호도 과인을 원망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소. 이는 그가 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오."

불충하고 불인한 신하가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를 죽이라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들을 것 같소?"

오왕 부차(夫差)의 말을 들은 오자서(伍子胥)는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다시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 그리도 순진하십니까? 대저 호랑이가 몸을 낮추는 것은 먹이를 덮치기 위해서이며, 승냥이가 몸을 움츠리는 것은 상대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월왕(越王)은 우리 나라에 패하여 인질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 원한이 골수에 사무쳐 있습니다. 그가 왕의 변을 핏은 것은 그 맛이 달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왕을 잡아먹기 위한 무서운 마음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그것을 모르시고 그것을 칭찬하신다면 우리 오(吳)나라는 장차 월(越)나라의 압제를 받고야 말 것입니다."

"경(卿)은 더 이상 속좁은 소리를 하지 마라. 나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도다!"

오자서(伍子胥)는 더 간해보았자 소용없음을 알았다.

"아아,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궁에서 물러나왔다.

제 38장 구천의 와신상담 (5)

BC 491년(오왕 부차 5년, 월왕 구천 6년), 구천(句踐)은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고국 월(越)나라를 향해 출발했다. 오나라로 잡혀가 부차의 종복 생활을 한 지 만 3년 만의 귀국이였다.

오나라 수도 오성(吳城)에서 월나라 수도 제기(諸暨) 사이에는 수백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 수로가 아니면 서로 내왕할 수 없을 정도다. 한마디로 물의 나라였다.

그 중 대표적인 강이 오송강, 전당강, 부춘강이었다.

이들 세 강은 종으로 횡으로 수백 개의 지류를 형성하면서 오(吳)와 월(越)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었다.

월왕 구천(句踐)은 오성을 나와 육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오늘날 회계만으로 흘러드는 부춘강가에 섰다. 하늘은 높고 밝았으며, 강은 깊고 맑았다. 이제 이 강을 건너 그 지류인 포양강(浦陽江)을 따라 내려가면 도읍인 제기(諸暨)다.

구천(句踐)은 강 건너 아름다운 고국 산천을 바라보았다.

감개무량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기쁨의 탄성을 내질렀다.

"내가 지난날 이 곳을 떠날 때는 다시는 월(越)나라 땅을 밟지 못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듯 이 산천을 보게 될 줄이야!"

구천(句踐) 부부는 범려의 안내를 받아 배에 올랐다.

돛이 오르고 배가 강심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갔다. 부춘강을 건너 포양강을 거슬러올라갔다. 포양강 나루에는 이미 문종을 비롯한 월(越)나라 신하들과 백성들이 대거 영접 나와 있었다.

배가 당도했을 때 돌아오는 사람과 마중 나온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러 천지가 흔들릴 지경이었다.

그동안 구천을 대신하여 월나라를 다스린 문종(文種)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동안 얼마나 고초가 많으셨습니까. 왕께서는 결코 회계산의 치욕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입니다."

구천(句踐)도 문종의 손을 부여잡고 대답했다.

"회계산의 치욕을 내 어찌 꿈속에서인들 잊으리오. 내가 오늘날 살아 돌아온 것은 하늘이 내게 원수를 갚게 하려 함이오."

그러고는 천문에 밝은 범려를 돌아다보며 말했다.

"내가 언제 입성하면 좋을지 점을 쳐보시오."

범려(范蠡)는 즉석에서 시초 점을 쳐보았다.

범려가 사(辭)를 보고 나서 대답했다.

"내일 입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둘러 수레를 달리십시오."

감격의 시간이 지나자 구천(句踐)은 곧 수레에 올랐다.

포양강 나루에서 도성인 제기(諸暨)까지는 육로로 꼬박 하룻길이기 때문이었다. 구천의 수레는 백성들의 환호성을 뚫고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일행은 밤새도록 달렸다.

수레는 다음날 정오 무렵에 제기에 당도했다. 도성 안으로 들어선 구천(句踐)은 가장 먼저 종묘로 달려가 자신의 귀환을 고하였다. 그러고는 궁으로 들어가 왕좌(王座)에 올랐다. 월나라는 방방곡곡 기쁨에 넘쳤다.

구천(句踐)은 조정 신료들에게 명했다.

귀국 후 첫 일성이었다.

- 도읍을 옮기리라!

그는 3년 전 회계산에서 오왕 부차에게 무릎 꿇고 항서(降書)를 바친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도읍을 회계(會稽)로 옮겨 그 날의 굴욕을 잊지 않으리라 결심했던 것이다.

성 쌓는 일은 범려가 맡았다.

범려(范蠡)는 회계 땅으로 달려가 천문을 보고 지리를 살핀 후 회계산 주변으로 큰 성을 쌓기 시작했다. 이것이 곧 월나라의 새도읍인 회계성(會稽城)이다.

그는 또 회계성 서북쪽의 와룡산에 비익루(飛翼樓)를 세우고는 그 곳으로 들어가는 문을 '천문(天門)'이라 이름하였다.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는 뜻이다. 동남쪽에는 하수구를 내어 지호(地戶)를 상징케하는 한편 크고 견고한 성곽을 쌓았다. 하지만 비익루가 있는 와룡산에는 일절 성벽을 쌓지 않았다.

범려(范蠡)는 군사들을 시켜 와룡산에 성벽을 쌓지 않은 이유를 널리 퍼뜨리게 했다.

- 우리는 오(吳)나라를 섬기는 나라다. 서북쪽에 성벽을 쌓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오나라로 공물을 보내는 데 몹시 불편하다. 하늘로 통하는 문에 어찌 벽을 쌓을 것인가.

이 소문은 오나라 세작들을 통해 오왕 부차의 귀에도 전해졌다.

부차(夫差)는 구천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가 이 같은 소문에 접하자 매우 만족했다.

- 과연 구천은 나를 섬기는 마음이 시종여일(始終如一)하구나.

그러나 범려(范蠡)가 와룡산에 성벽을 쌓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후일 오(吳)나라를 칠 때 방해되지 않도록 미리 길을 닦아놓은 것이었다.

회계성(會稽城)이 완공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났다.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보니 회계성 뒤편에 난데없이 산 하나가 솟아 있었다. 주위 둘레만도 수십 리가 되는 산이었다.

그 모양은 마치 거북이 엎드리고 있는 것 같았다. 초목도 무성했다. 회계성(會稽城)을 쌓으며 나온 흙무더기에 나무를 심은 것이겠으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여간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과장되이 말했다.

"이 산은 제나라 낭야 땅에 있는 동무산(東武山)이 아닌가. 어찌 하룻밤 사이에 동무산이 이 곳으로 날아왔는지 모르겠도다!"

범려는 본래 제(齊)나라 사람이다.

자신의 뜻을 펴기 위해 이곳 저곳 유랑하다가 남쪽 월(越)나라에 와서 정착하여 관직에 올랐다. 그러므로 그가 고향 땅에서 자주 본 동무산의 형상을 그 곳에 재현시키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리라.

동무산(東武山)을 본떠 만든 그 산이 떠벌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산이 날아온 것'으로 소문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또 그것은 범려(范蠡)가 노린 바이기도 했다.

그는 월왕 구천(句踐)에게 그 소문을 고했다.

"신이 성을 준공하자 하늘이 이에 응하여 난데없이 산을 솟게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월(越)나라가 장차 천하 패권을 잡을 징조입니다."

구천은 기뻐하며 그 산을 괴산(怪山)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그 산을 비래산(飛來山), 혹은 구산(龜山)이라고 불렀다.

범려(范蠡)는 다시 비래산 위에 영대(靈臺)라는 대(臺)를 세우고 그 위에 3층 누각을 지어 마치 신령스런 짐승이 오나라를 노리고 있는 듯하게 꾸몄다. 이렇듯 그는 회계성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오(吳)나라와 연관시켜 꾸몄다.

제 38장 구천의 와신상담 (6)

성곽과 도로와 궁성이 갖추어지자 월왕 구천(句踐)은 제기 땅을 떠나 회계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회계성(會稽城)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몹시 견고했다.

구천(句踐)은 만족하여 궁성을 둘러본 후 범려를 치하했다.

"경이 없었더라면 과인은 지금까지도 오(吳)나라에서 말뚝을 치우고 있었을 것이요. 진실로 내가 돌아온 것은 그대 덕분이요."

구천(句踐)은 내전으로 들어갔다.

자신이 잠자는 방 안의 구조가 눈에 익었다. 왕의 침실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웅색했다. 영문을 알지 못한 구천이 범려를 돌아보았다.

범려(范蠡)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왕께서는 지난날 호구산 석실에서 고생하시던 때를 잊지 마시고 부디 월(越)나라를 재건하여 오나라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십시오."

구천(句踐)은 범려의 뜻을 알았다. 그의 손을 움켜잡고 대답한다.

"과인은 오로지 경(卿)의 가르침에 따를 뿐이요."

이 날부터 월왕 구천의 고난스런 생활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오(吳)나라에 원수를 갚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가혹하게 다뤘다. 그는 자정이 넘을 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잠이 오면 송곳으로 무릎을 찔렀다. 겨울에 발이 시리면 오히려 찬물을 가져다 발을 담그고 자신을 꾸짖었다.

- 구천아, 구천아. 너는 오(吳)나라에서 당한 굴욕을 잊었느냐.

여름이면 방 안에 화로를 갖다놓고, 겨울이면 얼음을 품속에 끼었다. 또 그는 침상 위에 폭신한 보료를 깔아놓는 대신 쉼나무를 깔아 그 위에 누웠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온몸을 쏘서댔다.

등이 배겨 견딜 수 없으면 스스로를 또 심하게 질책했다.

- 구천아, 구천아. 네가 호구산 석실에서 잘 때 이보다 편했느냐!

침상 위에는 곰 쓸개를 매달아놓았다.

쓸개는 몹시 쓰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허를 댈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구천(句踐)은 쉼나무 침상에 눕기전에 한 번, 일어날 때 한 번 그 쓸개를 핥았다. 도저히 써서 핥기가 고통스러울 때는 고개를 쳐들어 자신을 향해 꾸짖었다.

- 구천아, 구천아. 네가 핥은 부차의 똥 맛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와신상담(臥薪嘗膽)이라는 말이 있다.

와신(臥薪)은 '쉼나무 위에 눕다' 라는 뜻이다.

상담(嘗膽)은 '쓸개를 맛보다' 라는 뜻이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감내한다는 뜻의 이 말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구천(句踐)은 잠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때로는 소리없이 흐느껴 울기도 하고, 때로는 이를 갈며 자신의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그가 어찌나 빠드득 이를 갈았는지 구천의 이는 모두 으스러졌다고 한다.

월왕 구천(句踐)은 자신에게만 엄격했던 것은 아니다.

나라의 신료들과 백성들에 대해서도 엄한 법령을 적용했다. 춘추시대를 기록한 또 하나의 귀중한 자료인 <국어(國語)>를 보면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젊은 남자는 늙은 여자를 아내로 삼지 못하게 했다.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아내로 삼지 못하게 했다. 튼튼하고 씩씩한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여자가 열일곱 살이 넘었는데도 결혼하지 않는다면, 남자가 스무 살이 되었는데도 결혼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물론 그 부모까지 처벌했다.

당시 중국에서는 여자는 스무 살에 시집을 가고, 남자는 서른 살에 장가가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구천(句踐)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 관례를 깨고 조혼(早婚)을 강요한 것이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계속해서 <국어(國語)>는 기록하고 있다.

여자는 해산이 임박하면 관가에 신고해야 했고, 관가에서는 의원을 파견하여 애를 낳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돌봐주었다. 그리하여 아들을 낳으면 산모에게 술 한 병과 개 한 마리를 잡아주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술 한 병에 돼지 한 마리를 주어 산모를 보양시켜 주었다.

세 쌍둥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유모를 보내주었고 쌍둥이를 낳으면 양식을 보태주었다. 적자(嫡子)가 죽으면 그 집은 3년 동안 부역을 면제해주었고, 서자(庶子)가 죽으면 석 달 동안 부역을 면제해주었다.

법령만 엄격하게 편 것은 아니었다.

구천(句踐)은 애정과 사랑과 인의로써 백성들을 잘 보살폈다.

사람이 죽으면 친히 그 집에 행차하여 조문하고 슬퍼하기를 마치 친아들처럼 했다. 고아, 과부, 병자, 빈약자의 자식들을 관청으로 불러들여 가르치고 먹여주었다.

뛰어난 사인(士人)들에게는 깨끗한 거처를 마련해주고, 훌륭한 의복을 주고, 음식을 넉넉히 제공해 마음놓고 도의(道義)를 갈고 닦을 수 있게 했다.

궁성 밖으로 나갈 때는 수레 뒤에다 음식을 실어 거리에서 만나는 젊은이들에게 나눠주며 반드시 그 이름을 물어보았다.

농사 때가 되면 친히 들에 나가 밭을 갈았다.

월부인(越夫人) 또한 늘 베틀에 앉아 베를 짜다. 구천 부부는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했다. 자신이 몸소 심은 것이 아니면 먹지 않고, 직접 짠 옷이 아니면 입지 않았다.

이렇게 7년 동안 구천(句踐)은 와신상담을 하였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았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

이에 맞추어 문종(文種)은 나라 살림을 다스리고, 범려(范蠡)는 군대 양성에 온 힘을 쏟았다.

구천(句踐)은 오왕 부차에 대해서도 지극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는 오나라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한 술책이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오(吳)나라로 사자를 보내어 부차에게 문안 인사를 올렸다. 그때마다 월나라에서 나는 특산품을 수레 가득히 실러보냈다.

오왕 부차(夫差)는 이러한 구천의 지극한 충성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지난날 빼앗은 월 땅을 도로 구천에게 돌려주었다. 이리하여 월(越)나라는 동으로는 은(鄞), 서로는 고멸(姑蔑), 남으로는 구무(句无)에 이르고, 북으로는 어아(禦兒) 땅에 이르러 사방 8백 리의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

구천(句踐)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대나무로 만든 배 10척과 갈포(葛布) 10만 필, 꿀 1백 병, 호피(虎皮) 5쌍을 부차에게 바쳤다.

"착하구나, 구천이여!"

부차(夫差)는 너무나 기뻐 구천에게 의관을 우모(羽毛)로 장식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우모로 장식

한 의관은 제후만이 착용할 수 있다.

그 무렵, 오나라 조정의 실권은 오자서에서 백비에게로 옮겨가 있었다. 월왕 구천의 귀국 문제로 인해 오자서(伍子胥)는 부차와 사이가 멀어졌고, 대신 백비가 총애를 한몸에 받게 되었던 것이다. 날이 갈수록 월나라에 대해 부차의 인정이 관대해지자 오자서(伍子胥)는 아예 병들었다 핑계하고 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나는 것은 태재 백비뿐이었다.

제 38장 구천의 와신상담 (7)

어느 날, 오왕 부차(夫差)가 태재 백비를 불러 말했다.

"이제 사방이 안정되고 나라가 태평하니 과인은 큰 궁궐을 짓고 편히 즐기고자 하오. 놀기 좋은 궁궐을 지을 만한 곳이 없을까?"

백비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신이 살펴보건대 우리 오나라에는 풍광이 좋기로 고소산(姑蘇山)만한 곳이 없습니다. 고소산에는 이미 부왕인 합려께서 궁궐을 지은 바 있습니다만, 규모가 너무 작아 왕께서 즐기실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이번 기회에 예전의 고소산 궁궐을 헐어버리시고 그 터에 새로이 커다란 고소대(姑蘇臺)를 지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도다. 내 고소산에다 1백 리를 바라볼 수 있는 높이에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소대(姑蘇臺)를 지어 인간 세상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리라!"

얼마 후, 오(吳)나라 전역에는 고소대를 짓기 위한 큰 목재를 구한다는 현상이 나붙었다.

이 소식은 월(越)나라 신하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월나라에는 재상 범려 외에 또 한 명의 모신(謨臣)이 있었다. 다름 아닌 내정 담당관 문종(文種)이었다.

- 높이 나는 새는 맛있는 과일을 탐하다 죽게 마련이고, 깊은 못 속에 사는 고기는 좋은 미끼를 욕심내다가 죽는 법이다. 내 어찌 이런 기회를 놓칠 것인가.

그는 오나라를 망칠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범려와 의논한 후 함께 월왕 구천을 찾아가 아뢰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吳)나라에 대해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이번에 오왕 부차(夫差)가 고소산에 커다란 궁궐을 짓는다고 하니, 왕께서는 그들이 좋아할 물품을 보내시어 오왕의 목숨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구천(句踐)이 물었다.

"우리가 목재를 보내는 것과 부차의 목을 취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소?"

"신은 그동안 오(吳)나라에 대해 원수를 갚기 위해 일곱 가지 방법을 강구해두었습니다."

문종(文種)은 그 방법을 구천에게 조목조목 설명해주었다.

첫째, 재물을 보내어 오(吳)나라 임금과 신하들을 기쁘게 해준다. 이는 그들을 방심케 하는 것이다.

둘째, 수시로 오(吳)나라에 곡식을 꾸어달라고 요청한다. 이것은 그들의 창고를 비게 하는 것이다.

셋째, 아름다운 미인을 보내어 오나라에 바친다. 이는 부차의 마음을 흐리게 하기 위함이다.

넷째, 훌륭한 목공과 목재를 보내어 화려한 궁궐을 짓게 한다. 이는 오(吳)나라 재물을 탕진케 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지혜 있는 신하를 오나라로 파견한다. 이것은 오나라에 난(亂)이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여섯째, 오나라의 충신들을 궁지에 몰아넣어 은퇴시키거나 자살하도록 한다. 이는 부차(夫差) 주위에서 인재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일곱째, 그 사이 월(越)나라는 재물을 저축하고 군사를 조련한다. 이는 대군을 몰아 오(吳)나라로 쳐들어가기 위함이다.

"이미 우리는 첫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침 부차(夫差)가 고소산에다 궁궐을 지을 마음이 있다고 하니 이제 바야흐로 넷째 방법을 쓸 때입니다. 우리가 좋은 목재를 구해 오나라에 바치면 부차는 궁궐 짓는일에 박차를 가할 것이요, 그러면 그만큼 그들의 재물은 일찍 바닥날 것입니다. 왕께서는 주저치 마시고 궁궐 짓는데 맞춤형 목재를 구해 오(吳)나라로 보내십시오."

"좋도다, 그대의 말이여. 오나라에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면 내 무엇을 주저하고 아까워하리오."

구천(句踐)은 곧 목공 30명을 골라 남쪽 울창한 산으로 들여보냈다.

목공들이 산 속을 뒤질 때 문득 눈앞에 커다란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나무 모두 둘레가 20 아름이 넘었고, 높이는 50길에 달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선 것은 노(櫟)나무였고, 그늘진 곳에 선 것은 남(楠)나무였다.

목공들조차 그렇게 큰 나무는 처음 보았다.

그들은 구천에게 가서 그 사실을 보고했다. 구천(句踐)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하늘이 우리 월(越)나라를 위해 신목(神木)을 보내주셨구나."

그러고는 친히 그 산으로 가 두 나무에게 제사를 지낸 후 목공들을 시켜 베게 했다. 목공들은 나무를 깨끗이 다듬고 손질했다. 그런 후에 오색이 영롱한 용과 봉황을 그려넣었다.

문종(文種)은 큰 배에 그 목재를 싣고 강을 건너 오성으로 들어갔다.

"동해의 천신(賤臣) 구천이 우연히 큰 목재를 얻었습니다. 감히 우리가 쓸 수 없어 대왕께 바칩니다."

부차(夫差)는 문종이 가지고 온 목재를 보고 입이 크게 벌어졌다.

이 소식을 들은 오자서(伍子胥)가 황급히 달려와 간했다.

"옛날 걸왕은 영대(靈臺)를 짓고 주왕은 녹대(鹿臺)를 지었다가 결국 재물만 탕진하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구천이 이런 목재를 보낸것은 우리 오나라를 해치려는 수작입니다. 받지말고 돌려보내십시오."

부차(夫差)는 자신의 흥취를 깨는 오자서가 미웠다.

"구천(句踐)은 자신이 이 목재를 사용할 수도 있건만 일부러 과인에게 보냈소. 어찌 그 호의를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부차는 오자서가 보는 앞에서 태재 백비를 불러 고소산에다 고소대(姑蘇臺)를 지으라 명했다.

공사가 시작되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였다. 월(越)나라에서 바친 두 개의 목재에 걸맞는 궁궐을 짓느라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커진 것이었다.

고소대(姑蘇臺) 공사는 무려 5년이 걸렸다.

높이가 3백 장(丈)이요, 넓이가 84장(丈)이었다.

1장(丈)은 10척이요, 당시의 1척은 약 23cm이니 3백 장이라면 700m에 가까운 높이였다. 물론 여기에는 다소 과장도 섞여 있으리라.

이 거대한 공사를 마치기 위해 오(吳)나라 백성들은 밤낮 없이 중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죽고 부상당한 자가 수천 명에 이르렀고, 그 원망은 하늘에 닿을 듯했다.

제 38장 구천의 와신상담 (8)

월왕 구천(句踐)은 고소대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월나라의 양대 동량(棟樑)이라 할 수 있는 범려와 문종을 불러들였다.

"이제 일곱 가지 계책 중 첫째와 넷째를 실행에 옮겼소. 다음은 어떤 계책을 쓰는 것이 좋겠소?" 이번에는 범려(范蠡)가 안을 내었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마련입니다. 오왕 부차(夫差)가 고소대를 지었다는 것은 곧 놀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찌 미인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바야흐로 미인계(美人計)를 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여러 차례 미인들을 부차에게로 보내지 않았소? 새삼스레 미인계라니, 그 뜻을 잘 알 수 없구려."

"지금까지 보낸 여인들로는 미인계라 할 수 없겠지요. 옛날 유씨씨(有施氏)는 걸왕에게 말희(妹喜)를 보내 하왕조를 종식시켰고, 유소씨(有蘇氏)는 달기(妲己)를 주왕에게 보내 은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낼 미인은 바로 이 정도의 미색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어찌 쉽게 구할 수 있으리오?"

"우리 월(越)나라는 예부터 색향(色鄕)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미인이 많습니다. 왕께서는 신에게 동자(童子) 1백 명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신은 관상 잘 보는 자 1백 명을 뽑아 그 동자들과 조를 이루어 두루 국내를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발견된 미인들을 대상으로 신이 직접 확인하면 어찌 경국지색(傾國之色)을 찾아내지 못하겠습니까?"

"종고 종도다!"

이때부터 월(越)나라 각지에서는 미인 뽑는 일로 부산했다.

반 년쯤 지나자 동자와 관상가로 구성된 1백 조의 채홍사(採紅使)로부터 보고서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모두 2천 명의 미인이 추천되었다.

이 일을 관장하는 범려(范蠡)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내려가 추천된 미인들을 일일이 확인했다. 그리하여 다시 50명을 선발하고, 그 중에서 또 고르고 골라 마침내 두 명의 미인을 뽑았다.

- 서시(西施)와 정단(鄭旦).

범려가 최종적으로 낙점한 여인들의 이름이었다.

서시(西施)는 저라산 아래에 사는 어느 초부(樵夫)의 딸이었다.

저라산은 지금의 절강성 저파시 근처에 있는 산이다. 회계성에서 동쪽으로 2백여 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원래 저라산 밑에는 동촌(東村)과 서촌(西村)이라는 두 마을이 있었다. 그 곳은 시씨(施氏)의 집성촌이었다.

최종적으로 뽑힌 두 여인은 공교롭게도 둘 다 서촌 태생이었다.

한 여인은 서촌(西村) 토박이이고, 다른 한 여인은 외지를 떠돌다가 그 곳에 정착한 사람의 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토박이 여인을 서시(西施)라고 불렀고, 다른 한 여인을 정단(鄭旦)이라 하였다. 서시란 서촌에 사는 시씨(施氏)라는 뜻이요, 정단이란 정나라에서 온 단씨(旦氏)라는 뜻이다.

서시(西施)와 정단(鄭旦)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자색을 갖추고 있었다. 더욱이 그 녀들은 구용강(句勇江)가의 이웃에 살았다. 두 여인은 매일 함께 강가로 나가 빨래를 했다. 맑은 강물에 비친 두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은 마치 한 쌍의 부용(芙蓉) 같았다.

범려(范蠡)는 구용강가에서 빨래하는 두 여인을 보고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였다. 망설임 없이 두 여인을 데리고 회계성으로 돌아왔다. 이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퍼졌다.

사람들은 월(越)나라 최고의 미인을 구경하기 위해 만사 제쳐놓고 모여들었다. 그 바람에 범려와 두 여인이 탄 수레는 길이 막혀 성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때 범려(范蠡)는 한 가지 꾀를 내었다.

'두 여인의 미모도 확인하고 국고(國庫)도 충당하자.'

범려는 서시(西施)와 정단(鄭旦)을 교외 별관으로 데리고 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다.

- 미인을 보고자 원하는 사람은 이 궤에다 금전 1문(文)씩 넣되, 만일 미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도로 가져가라.

백성들은 앞다투어 궤 속에다 돈을 넣었다.

눈 깜짝할 사이 커다란 궤가 가득 찼다. 잠시 후 범려는 서시(西施)와 정단(鄭旦)을 데리고 누대 위로 올랐다. 두 여인은 난간에 기대어 구름처럼 모여 있는 사람들을 굽어보았다.

"아.....!"

서시(西施)와 정단(鄭旦)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탄성조차 내지르는 것을 잊었다. 그들의 눈에 두 여인은 지상 사람이 아니라 천상의 선녀가 하강한 것처럼 보였다. 두 여인의 모습이 난간에서 사라졌는데도 사람들은 흠뻑 젖어 있을 줄 몰랐다. 아무도 돈을 도로 가져가는 사람은 없었다.

범려(范蠡)는 이렇게 사흘간을 교외 별관에서 머물렀다.

그 사이 모인 돈이 한 고을에서 거두어들인 세금과 맞먹을 정도였다. 범려는 그 돈을 국고에 바치고 나서 새삼 탄식했다.

- 여인의 아름다움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로구나. 지난날 한 왕조가 멸망할 때마다 그 뒤에 미인이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로구나.

범려(范蠡)는 자신의 집 뒤편에 작은 누각을 짓고 두 여인을 그 곳에 머물게 했다. 그러고는 늙은 학사들을 초빙해 노래와 춤과 화장하는 법과 걸음걸이법 등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방중술(房中術)까지 가르쳤다.

그는 서시(西施)와 정단(鄭旦)에게 오왕 부차의 정신을 빼놓을 모든 재주와 기술을 습득시킬 작정이었던 것이다.

BC 489년(월왕 구천 8년), 구천이 오나라에 풀려난 지 3년째 되는 해의 일이었다.